

대학 도서관의 이용자 교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ser Education in University Libraries

성기주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권숙경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Kee-Joo Sung, Suk-Kyoung Kwon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ongduk Women's University

본 논문은 대학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에 대해 조사하여 각 유형에 따라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담당자, 그리고 교육 내용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1. 서론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대학 도서관이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원들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대학 도서관들만이 자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원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사용법 등에 관한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파악하여 이용자의 요구 및 시대 변화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대학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비교,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이용자 교육을 제시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 대학 도서관 사서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어 이용자 교육 형태, 교육 대상, 교육 담당자,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조사 하였다. 조사 대상은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총 104개)중에서 무작위로 51개(국립 대학 11개교, 사립대학 40개교) 대학 도서관을 선정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였다. 그중에서 21개의 전자 우편이 수신되었으며, 추가적으로

17개의 대학 도서관 사서와 전화면담이 이루어졌다.(총 응답율 75%) 자료수집 기간은 1999년 5월 3일 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조사 기간이 한정되었으므로 각 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변화될 수 있는 제한이 있다.

2. 대학 도서관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2.1 오리엔테이션 형태

신학기초 입학식을 전후하여 열리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사서(열람과장이나 열람계장)가 30분내외로 간단한 책자를 읽거나 도서관을 견학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번에 다수의 대상에게 교육을 시킬수 있지만, 교육 내용이 단순하고 대상별로 차별되지 않아 형식적인 교육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2.2 도서관내 특강 형태

오리엔테이션 형태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도서관 검색 시스템 및 검색 엔진 사용법, 그리고 해외 학술 DB와 CD-ROM 이용법등에 대하여 교육하며, 소수의 대학만이 계열별 인문사회 계열/ 과학기술 계

열), 교육 대상별(교수/ 학생/ 교원)로 교육한다. 특히 학과별 단체 신청에서 이용자 개별 신청으로 변하고 있으며, 교육은 사서가 담당하며 시간은 대부분 1시간 이내이다.

2.3 교양과목 형태

각 대학이 지닌 특성에 따라 1-3학점으로 구성되고, 수강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각 대학별로 교양과목명도 다양하며 교육 담당자는 대부분 교수이며 사서가 보조하는 경우도 있다.

2.4 웹을 통한 형태

인터넷을 통하여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참고 봉사'나 '이용자 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진다.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이용자가 필요할 때마다 접속하여 참고할 수 있지만, 단순한 도서관 안내나 도서관의 자료 검색, 각종 해외 DB의 사용법으로 되어있어 쌍방향적인 교육을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on-line으로 사서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이용자 교육이 웹상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3. 대학 도서관의 이용자 교육 현황

각 대학 도서관의 이용자 교육은 오리엔테이션, 도서관내 특강, 교양과목, 웹 형태 등에서 자관의 특성에 따라 한가지 혹은 두가지를 병행하고 있으며 특히 교양과목 형태도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중에는 오리엔테이션형태, 도서관내 특강형태, 교양과목형태를 병행하는 대학이 있었고(강남대, 서강대), 그외의 대학은 오리엔테이션 형태만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을 이용하여 도서관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는 도서관들 중에는 4가지 형태를 모두 취하는 도서관들도 있었다.(서울대, 연세대) 따라서 아래의 각 형태별 이용자 교육에서는 그 도서관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이용자

교육에 분류하였다.

3.1 오리엔테이션 형태 : 강릉대, 강원대, 경희대, 고려대, 관동대, 광주대, 서울시립대, 상명대, 순천대, 울산대, 원광대, 인하대, 전남대

• 교육 담당자 : 사서 • 교육 대상 : 신입생 (학부생) • 교육 시간 : 30 분 내외

• 교육 내용 : 도서관 시설, 자관 검색 메뉴얼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도서관 자료 이용 안내와 일반적인 정보찾기 교육등 이다.

3.2 도서관내 특강 형태 : 경북대, 경상대, 계명대, 동덕여대, 동아대, 숭실대, 아주대, 전주대, 창원대, 한양대

• 교육 담당자 : 사서 • 교육 대상 :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및 교직원

• 교육 시간 : 1시간내외

• 교육 내용 : 참고 서지 활용법, 각종 정보 검색법, 전자 저널 검색법, CD-Net 검색법, 해외 학술 데이터 베이스 검색법등 이다.

• 도서관 특강 명칭 : '도서관 이용 안내 교육'(경북대, 경상대, 계명대, 숭실대, 전주대, 창원대), '온라인 서비스 이용 교육'(동덕여대), '학술 정보 이용 교육'(동아대), '정보 시스템 및 이용 안내 교육'(아주대), '학술 정보 활용 교육'(한양대)등 이다.

3.3 교양과목 형태 : 강남대, 건국대, 경성대, 대구대, 서강대, 충남대, 전북대, 한성대

• 교육 담당자 : 교수(사서가 보조 업무를 맡는 경우도 있다.) • 교육 대상 : 학부생

• 교육 시간 : 학교의 특성에 따라 1-3시간으로 나누어 진다.

• 교육 내용 : 교양 과목의 경우 대학의 특성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다.

- 강남대 : 교양과목명은 '탐구의 천당 도서관'(3학점)이며, 교육내용은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도서관 현장을 방문하여 각종 이용방법등을 설명하는 것이다. 특히 신입생을 위한 오리

엔테이션 형태와 각 단과대별 정보 검색 교육은 도서관내 특강 형태와 병행한다.

- 건국대 : 교양과목명은 '건학정신과 대학생 활'(1학점)이며, 교육내용은 각종 데이터베이스 사용법과 정보 검색법 이다.

- 경성대 : 교양과목명은 '도서관 문헌이용법'(2학점)이며, 교육내용은 각종 자료 이용법과 자료 검색법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좌는 주간은 교양선택으로 매년 개설되며 수강생은 400-500명 정도이고 야간은 격년제로 개설된다.

- 대구대 : 98년 2학기 까지는 '학술 정보 탐색법'(2학점)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었지만, 99학년도 1학기에는 개설되지 않았다.

- 서강대 : 교양과목명은 '도서관학개론(Use of the Library, 2학점)'이며 교육내용은 자료 이용법, 자료 검색 및 가공법, 멀티미디어 자료 이용법, 인터넷과 정보통신을 통한 자료 검색법, 논문작성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형태와 재학생을 위한 도서관내 특강형태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서관내 특강형태는 3월(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검색법), 4월(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데이터베이스 활용법), 5월(졸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검색 및 논문작성법), 6월(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검색법)별로 이루어지고, 한학기에 4번 (학기중 매달) "정보검색 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실에서 도서관자료 이용법, CD-ROM, ON-LINE DB 이용법, 국내외 자료검색법 등을 교육한다.

- 충남대 : 교양과목명은 '문헌조사법'(3학점)이고, 교육내용은 각종 데이터베이스 사용법과 자료 검색과 가공법등 이다. 그러나 1999년도 교과과정에서는 '문헌조사법'이 포함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개설되지 않을 전망이다.

- 전북대 : 교양과목명은 '도서관 자료 이용법'(3학점)이며 교육내용은 각종 해외 데이터베이스 검색방법과 CD-NET 등을 활용하는 방

법 각종 참고 정보원에 접근하는 방법 등이다.

- 한성대 : 교양 과목명은 '도서관 이용법'이며 교육 내용은 전공과 관련된 자료 활용법, 해외 데이터 베이스 활용법, 전자 저널 검색법 등이 다.

3.4 웹을 이용한 형태 :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충북대, 포항공대

• 교육 담당자 : 사서 • 교육 대상 :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와 교직원

• 교육 시간 : 시간은 무제한으로 이용자가 필요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다.

• 교육 내용 : 자관의 각종 서비스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거나(서울대, 연세대, 포항공대), 자관에서 실시하는 도서관내 특강 형태를 웹상에 공고하는 형식이나(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자관의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이용할 경우 생기는 의문점을 사서에게 질문할 수 있는 형태(서울대, 숙명여대, 연세대, 충북대, 포항공대)가 있다.

- 부산대 : 도서관 특강 형태인 참고문헌 찾는 법, 참고서지 활용법, 정보 검색법(Pulip, CD, 해외학술 DB, 도서관 홈페이지), 도서관 서비스 안내 등을 공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선착순으로 도서관 열람과나 이메일로 개별 신청해야 한다. 특히 1999년도부터 학부 신입생들을 위하여 '도서관 이용 교육'을 학과별로 해당 주제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 서울대 : 중앙 도서관 정보 지원실에서 도서관내 특강 형태로 해외 데이터 베이스 검색법 및 국내외 도서관 소장자료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신청과 확인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해야 하고 각종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설명도 추가적으로 되어 있으며 이용자와 사서가 직접 질문과 응답을 할 수 있다. 특히 학기초에 신입생 및 복학생들을 대상으로 음향 자료실에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관한 비디오를 상영하며 4층 로비에 정보 데스크를 설

치하여 사서가 이용자의 문의사항을 해결해 준다. 교양과목명은 '도서관 정보 검색론' (2학점)이며 96년 2학기부터 학부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수강인원은 약 200명)

- 성균관대 : 도서관내 특강 형태인 인터넷 정보 검색, SearchBank 검색, IDEAL 검색, ISI 검색, BawkerSaur 검색, Winspurs 검색, 고서/고문서 검색, 도서관 이용 안내와 SIMSAN 검색을 광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교육명은 '정보 검색 교육'이며, 교육 신청은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 숙명여대 : 도서관내 특강 형태인 PQD(PA Rearch II), PQDD(DAO Web version)이용방법, SOLIS 검색법, 학술기관 정보 검색법, CD-NET검색법 등을 광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각종 사항(성명, 학과, 학번, 연락처, 원하는 교육내용)을 기입하여 온라인 형태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사서와 이용자가 쌍방향으로 질문,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연세대 : 도서관 특강 형태인 오리엔테이션(기초과정으로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학술데이터베이스 이용법(중급과정으로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각종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검색 기법에 대한 교육), SCI/CSA/WebScience/PQD(고급과정으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각종 학술지에 대한 색인과 초록 및 인용정보를 검색하는 교육), 전자저널(고급과정으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IDEAL과 ScienceDirect검색에 대한 교육)을 광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사서와 이용자가 질의 응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교양과목으로 '정보와 사회'(2학점)가 개설 되어있다.

- 충북대 : 이용자와 사서가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 '참고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다. 질문은 특정조사형 질문과 연구조사형 질문으로 나누어지고 응답은 참고도서실 사서가 담당하며 이용자는 ID와 암호가 있어야 한다.

- 포항공대 : 도서관 소장자료 검색, 정보의 제

공범위에 따른 DB의 이용방법, 원문복사서비스(소장자료와 비소장자료), 래퍼런스, 온라인 상용 데이터뱅크, 분야별 유용한 사이트 소개 등의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설명과 웹을 통한 교육에 의문이나 문제가 생기면 교육담당 사서에게 개별적으로 질문 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의 이용자 교육을 유형별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오리엔테이션 형태의 경우 교육 대상은 신입생이고 교육 시간은 30분 내외이며 교육 담당자는 사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도서관내 특강 형태의 경우 교육 대상은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로 다양하며 교육 시간은 1시간 내외이고 교육 담당자는 사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자 교육을 주제별, 계열별, 데이터베이스별 등으로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교양과목 형태의 경우 교육 대상은 수강신청을 한 학부생이며 교육 시간은 1-3시간이고 교육 내용은 각 대학과 도서관들이 지닌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4. 웹상의 교육 형태의 경우 오리엔테이션, 도서관내 특강, 교양과목 형태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교육 내용이 자원에서 실시하는 도서관내 특강을 광고하거나 각종 데이터베이스 사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용자 교육의 대상이나 주제를 차별화 하고 내용면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이용자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